

“중소기업과 공생경영” 광주은행 10억 출연

‘중소기업주간’ 개막...16일까지 행사 다채

오늘 신안서 50개 업체 CEO 초청 간담회

내일 시청서 실무자 대상 세무 강연회 등

중소기업인 최대 큰 잔치 ‘제2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주관기관인 광주은행이 다채로운 행사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16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맞춰 오는 14일 북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우수

중소기업 CEO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중소기업 CEO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금융지원 정책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16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맞춰 오는 14일 북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우수

협동조합 한마음대회’를 순천 정원박람회장서 개최한다.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은 “올해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공생경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주간은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을 고취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최재호·임동률 기자 lion@kwangju.co.kr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5일 센트럴호텔에서 ‘2013년 제1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동반성장 관련 강연을 듣고, 최근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어 16일에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지원기관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 정보교류와 상호 유대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광주전남

협동조합 한마음대회’를 순천 정원박람회장서 개최한다. 광주은행 송기진 은행장은 “올해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공생경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주간은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을 고취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최재호·임동률 기자 lion@kwangju.co.kr

카드론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원, 7월부터 금리 공시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 카드사별로 달랐던 고객 등급이 없어지고 신용등급별로 카드 대출금리가 공시되는 등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연합뉴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분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카드론은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아 카드론 약관을 신중히 살펴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기로 한 것이다. 카드론 대출금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이상이라 금리 인하시 고객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서로 다른 등급을 마음대로 매겨 대출금리를 정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카드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年 3.27%

은행 예금 이자 역대 최저

은행 정기예금 가입자들이 받는 평균 이자가 이미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는 연 3.2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중평균 금리는 예금액에 대해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금리로, 3월 말 현재 평균 이자가 연 3.27%라는 의미다. 잔액기준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2008년 12월 5.98%에서 2011년 1월 3.57%로 떨어지고서 작년 1월 3.96%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내리막을 탔다. 3월 한 달간 신규 가입자의 금리를 보여주는 신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최근 저금리의 영향으로 2.85%에 불과하다. 그러나 역대 최저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쳤던 2009년에는 5월에 2.79%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저금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과거에 가입한 고금리 이율의 정기예금이 많이 남아있던 반면 요즘은 저금리 기간이 길어 잔액 기준으로 더 낮은 금리를 기록하는 것이다. 당시 한은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연 2.0%였다. 그러나 시장 금리는 지금이 훨씬 낮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08년 평균 연 5.27%에서 2009년 4.05%, 2012년 3.13% 등을 거쳐 올해 들어서는 평균 2.64%로 떨어졌으며 지난 2일에는 2.44%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효성이 13일 전주시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에서 운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훈 효성 부회장, 조현상 효성 산업자재PG장(부사장), 송하진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산 2000t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효성은 고성능 탄소섬유를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효성 제공>

효성 ‘고성능 탄소섬유’ 본격 생산

전주 첨단단지 공장 준공

효성그룹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탄소섬유 양산에 본격 나섰다. 효성은 13일 전주시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182,253㎡)에 연산 2000t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훈 부회장과 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 운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

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탄소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역량 강화에 집중해 탄소관련 산업 성장의 주축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효성은 탄소섬유 브랜드 명칭을 ‘텐섬(TANSOME)’으로 확정

하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세계 탄소섬유 시장은 도레이, 미쓰비시세이 등 일본 기업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효성이 탄소섬유 양산에 돌입함으로써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효성의 탄소섬유 연구에 참여한 양갑순 전남대 고분자섬유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탄소섬유 생산은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

입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며 “효성의 국내 양산으로 방위산업은 물론, 친환경 전기자동차나 신소재 관련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탄소섬유는 향후 철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로, 자동차·항공·항공우주·압력용기 등의 산업용과, 항공용, 골프채·낚시대·라켓·자전거 프레임 등을 포함한 스포츠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탄소섬유 시장은 연간 5만(20억 달러) 규모지만 2020년에는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효성은 전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양도소득세 이달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

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등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48.70(+3.95)	▼ 코스닥지수 565.72(-3.98)	▲ 금리(국고채 3년) 2.57%(+0.02)	▲ 원·달러 환율 1111.70원(+5.60)
------------------------	-----------------------	---------------------------	---------------------------

기준금리 인하 저소득층엔 부정적

저축액 이자수입 감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전반적인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종 수 총재가 금리인하 직후 주장한 바와 배치된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금융감독원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지난해 전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은 이번 금리인하로 연평균 1만6000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의 저축액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역시 연 2만7000원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소득 1분위 계층은 금리인하로 1만1000원을 손

해 보게 된다. 금리변동에 따른 지출감소보다 소득감소가 더 많으니 부채상환능력은 나빠진다. 이는 이들의 저축액과 금융부채에 금리변동이 모두 반영된다. 전체 소득 1분위의 저축액은 평균 1087만3000원, 금융부채는 631만8000원이다. 같은 식으로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계층은 연간 22만 원의 이자비용을 줄이고 37만5000원의 이자수입을 잃어 15만5000원이 손해다. 결국, 금리인하는 부채가 많은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하지만, 전체 저소득층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는 10일 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수출농협 조합장, 전남도청, NH무역 수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광주전남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남농협 제공>

제21회 The 21th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Gurye 2013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13. 5. 21(화) ▶ 5. 22(수)

구례실내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

함께 뛰자 힘차게!

꿈을 향해 더 높이!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청정하천 섬진강
최적의 전지훈련지

개회식

2013. 5. 21(화) 10:00 ~ 12:00

- 구례 잔수농악 길놀이
- 가수 축하공연(이정옥, 배소연)
- 치어리더 응원 댄스 공연(블랙켓)
- 퓨전 전자현악 초청 공연(에프삼)

폐회식

2013. 5. 22(수) 15:30 ~ 16:50

- 가수 축하공연(홍실, 문연주)
- 7080 '프로로그' 축하공연

■ 주최 : JNSO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 구례군, 가평경기단체
 ■ 후원 : 전라남도, 문화체육관광부

| 문의전화 |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체육지원계 T. 061) 780-2251~2253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T. 061) 288-1365